



## 반사회적 인격장애(3)

저자 **최혁재**

경희의료원 한약물연구소 부소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 개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공감능력과 양심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범죄로 드러나지 않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학대행위도 만연하다. 이들의 위장과 용의주도한 범행에 피해자들은 그들의 역할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 대한 심리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유년기부터 정확한 성향 파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 키워드

각성, 중범죄, 학대, 위장, 심리치료, 거짓말, 성향파악, 공감양육

##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표출

### 3.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범죄행각

보통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요소나 목표에 대해 물어본다면, 아마 직업적인 성공, 자아실현, 행복한 가정, 공익에 대한 기여 등을 선정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중 단 하나에도 기쁨을 느끼거나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각성'의 단계를 거치면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경향이 높은 것이다. 흑자들은 특수부대원이나 외과의사, 스파이, 테러리스트, 조직폭력배 등을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추천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그 직업으로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충동적이고 현재에만 집착하며 충성심이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극도의 상황을 견뎌내고 신뢰를 보여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해당 직업군과는 더더욱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공감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진 선까지만 가면서 스포츠나 기타 직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부분 공감능력 부족과 집중력 부족은 사회에서의 성공과 연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강간범, 절도범, 사기꾼, 가정폭력범, 지능범, 무허가 증권브로커, 아동학대범, 갱 단원, 불미스러운 일로 자격 박탈된 변호사, 마약상, 상습 도박꾼,

조직폭력배, 의료관련 범죄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충동적이기만 하고 살인행위에 집착하는 테러리스트, 사이비교주,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는 사람, 파렴치한 실업가 중 상당수가 사이코패스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수감자들 가운데 평균적으로 20%가 소시오패스라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수감자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소수집단인 이들이 강탈, 무장강도, 납치, 살인 등의 중범죄와 반역, 간첩행위, 테러 등의 반국가 범죄의 50% 이상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사이코패스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자에 비해 두 배에 달하며, 특히 폭력에 관련된 재범률은 세 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 범행이 성폭행과 이어질 경우, 그 자체에 대해 성적 자극을 받는 변태적 성향의 변수까지 작용한다면, 재범률은 3/4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그만큼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성폭행 범죄이다. 따라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자를 단순히 양형기준에 의해서만 자유를 제한했다가 다시 사회로 고스란히 돌려보내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대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한다. 사이코패스가 대부분 연쇄살인마이기 보다는 주로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학대하고 속이며,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사이비 교주가 되거나 금융 사기꾼이 되어 얼토당토 않는 논리와 거짓으로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들에게는 진정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일까? 아니면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알아보듯이 자신에게 당할 만한 피해자를 알아보는 능력이 사이코패스들에게 있기 때문일까?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의한 피해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감옥에 수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것이 은폐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채 범망을 빠져나간다. 이러한 종류로는 위조채권 판매, 애매한 사업과 실무경력을 앞세운 각종 사기 행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학대 행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난삼아 연애를 하거나 바람을 피워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가족에게 금전적, 정서적으로 소홀히 하고 방치하는 행위, 회사 공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데, 실제로 그 조직에 큰 해가 되어 법정에 설 일이 있어도 가족, 친구, 주변인, 동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증언 없이는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사이코패스가 직업을 위장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기본 기술을 쉽게 꾸며낼 수 있고, 전문용어를 금방 습득할 수 있으며 자격 증명을 철저히 검사하지 않는 직업을 고르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좌지우지 하는 것을 기본 행위로 하는 직업이라면 더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금융컨설턴트, 성직자, 상담가, 심리학자 등으로 가장하여 쉽게 사람에게 경계의 문을 열어놓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은 전문적인 역할을 활용하여 가면을 쓴다. 성직자나 고위직 공무원, 교사나 훌륭한 사업가에게 그들의 행동을 일일이 꼬치꼬치 따져 묻지 않는 것은 대중은 그들에게 그 역할의 본분 자체를 부여하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인해 오히려 그의 '역할'에 묻히고 만다. 실제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잘 검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학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할지라도 그의 잘못에 대해 쉽게 추궁하지 못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하고 맡겨 버리면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즉, 피해자들은 의구심 자체에 대해서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림 8.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의 항소심 출석(출처:뉴스시스)

더 비극적인 것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남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상황에 맞게 기막히게 처신하며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몰아붙이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오히려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더 이상 진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상황을 조종한다. 깊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들의 행각이 들뜬 나기 마련인데, 그 때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거짓을 추궁하는 사람들에게 극한의 거짓을 행사하여 혼란스럽게 하거나,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주의를 흐뜨리거나 거침없이 악어의 눈물을 쏟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사건이었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실제 살인을 저지른 김양 보다 뒤에서 김양을 조종한 박양의 존재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재의 형법체계로는 주범이 김양이 되고, 박양이 종범이지만 사실 이 관계는 두 사이코패스의 협력관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박양은 달변가 역할로서 전체 범행을 모의하고 김양을 조종하며, 김양은 행동가 역할로서 실제 범행을 자행했으며, 법정에서 서로에게 고성까지 지르면서 책임을 떠넘긴 행동을 볼 때, 이 알팍한 공생관계가 예정된 대로 파행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김양은 차라리 사형시켜 달라며 법정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지만, 처음 검거 시에 자신들에게 형량의 유리함을 따져 ‘야스퍼거 증후군<sup>1)</sup>’ 환자의 가면을 쓰려 했던 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처지를 호소하는 것은 단지 처벌을 약화시키려는 ‘위장’일 뿐이다.

이런 그들의 ‘위장’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갈 때 극대화된다. 사이코패스의 으뜸가는 특성은 역설적으로 매력이다. 사이코패스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중에도 관계가 지속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진

1)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관심 분야가 편중된 특징을 보이는 정신과 질환으로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저산소증이나 출산 전후의 합병증이 원인이라는 가설이 많으며,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거나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말투에 운율이 부족하고 내용이 과장되며 눈치가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 실제로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증상을 보인다. 또한, 관심분야에 대한 집착이 높고 어린 시절에 언어발달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특징으로 인해 자폐증과 구별된다.

매력에서 피해자들이 빠져 나오지 못한 까닭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공포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과 전율을 즐기지만, 사이코패스는 늘 위험한 상황과 선택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감당하자고 설득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역설적으로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벗어나보지 못한 일상의 테두리를 과감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동경하면서 마수에 걸려드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누가 성적인 유혹에 약할지를 감지하여 감정적 유대를 가장하며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관계를 이끌어낸다. 그들은 전문배우만큼 연기에 능하기도 하다.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큰 관심을 쏟는 모습, 투철한 애국심, 정의로운 분노,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수줍음, 눈물이 절로 나오는 슬픈 모습 등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사이코패스는 대화 중에 바디랭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강렬하게 쳐다보거나 몸을 적절히 앞으로 기울이거나 가까이 다가오는 등 자꾸 사적 공간을 침범하려 든다. 이들의 표현은 너무나 극적이고 상대방을 무기력하도록 주의를 흐뜨린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사로잡아 자신이 말하고 있는 실제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피해도 동시에 입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이미 많은 피해를 입곤 한다.

사이코패스는 범행대상을 고를 때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연구에 의하면, 상대방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범행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는 자존감이 낮고 의존적이며 주체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력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선한 구석을 가진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이용해먹는다. 그 가운데 가족이라는, 상사와 부하라는, 스승과 제자라는, 종교적 지도자와 신도라는 사슬에 묶여 속절없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자존감이 낮고 의존적이며 주체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력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선한 구석을 가진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이용해먹는다. 즉, 이들에게는 상대방이 먼 이웃이든, 적이든, 혈육이든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오로지 자신의 먹잇감을 찾는 육식동물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일 것이다. 이들의 정서적 특징은 범행스타일과 아주 잘 부합한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이 2017년,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더라도 이들은 다른 사람과 행복감이나 친밀감을 전혀 공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도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미안함 같은 것은 느끼지 않는다. 또한, 사이코패스는 쉽게 공격적으로 변하지만, 그 상태에서 전혀 통제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보면 불같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들은 그저 짜증내는 것 정도이다. 즉, 자신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한 수감자는 화가 날 때 통제 불능이 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오,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을 얼마나 다치게 할 것인지 결정하죠.” 그러다보니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해도 이들은 용의주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그 상황에 대해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적인 범행이 더 진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이코패스들의 잔혹성은 대부분의 경우,

중간에 발각되어 멈춰지지 않으면 진화를 거듭한다. 초기의 범죄행태보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며 잔인함과 용의 주도함을 높여간다. 이들은 웬만한 자극에도 오로지 자신들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임에만 몰두한다. 그런데 이런 게임들은 그들에게 아주 빠르게 낯고 진부해져 버린다. 피해자들에게는 끔찍하기만 한 행위들을 자행하면서도 그들은 지루함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9. 노르웨이어택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들(출처:영남일보)

이런 사이코패스에 의한 범죄는 최근 다크넷 사이트를 통해 총기나 사제폭탄 및 기타 범행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더 통제가 어렵게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범행양상도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의 브레이빅은 수감생활 중에 오슬로대학교 정치학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이어서 자신의 5년 동안의 수감생활이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서 고립된 생활이었기 때문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면서 노르웨이 정부를 고소했다. 2016년 지방법원은 그의 수감에 대한 조치가 유럽인권보호조약의 제3조인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처벌을 금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17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그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그는 다시 이 문제를 유럽 인권법원으로 가지고 갔다. 이 부분만 보면, 그는 비록 범죄자로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냥 삶의 가치를 놓아버리기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2011년 노르웨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희생자를 발생시킨 소위 ‘노르웨이 어택’ 사건의 단독범이다. 이 범죄를 통해 총 77명이 사망하고, 319명이 부상했다. 당시 브레이빅은 새벽 3시 30분에 오슬로 정부청사 밀집지역에 대한 차량폭탄 테러를 일으킨다. 분쟁이나 군사적 긴장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노르웨이에서 이 테러로 7명이 사망하고 15명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사실 이 커다란 사건도 ‘위장’에 지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모든 경찰력이 사건현장에 집중된 가운데, 브레이빅은 당초 계획대로 유유히 우토야 섬으로 향했다. 우토야 섬에는 노동당 청소년 정치캠프가 열리고 있었고, 다음날 있을 연스 스톨텐베르그 총리의 연설 때문에 무려 7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브레이빅의 목표는 이들이었다. 당시 행사장에는 폭탄테러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모여 불안감을 표출하며 어수선하게 모여 있었는데, 경찰복장을 한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테러

진압팀이라면서 욕지로 돌아갈 고속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빨리 나오라는 얘길 전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사람들이 모였음을 확인한 뒤, 가방에서 자동소총을 꺼내 양손에 쥐고 그야말로 ‘그냥’ 총을 쏘아댔다.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청소년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이때부터 90분 동안, 경찰병력이 극장 출동하는 가운데 살육전이 벌어졌다. 간신히 그를 피해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을 태연히 조준사격하거나 죽은 척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머리에 총을 쏘면서 확인 사살하는 잔혹함이 뒤따랐다. 너무도 유유히 학살극을 벌인 브레이빅은 경찰이 출동하자, 더 허무하게도 손쉽게 투항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리고 노르웨이 법정은 그에게 다중살인을 적용했고, 법정 최고형인 21년을 내렸다. 희생의 규모와 피해자 가족들에 남겨진 삶을 생각할 때, 인과성이 현저히 부족한 처벌이라 할 것이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그는 나라로 유입되는 무슬림에 대해 우려한 나머지 벌인 사건이라며 마치 극우파의 극단적 행동인 듯 다시 한 번 ‘위장’을 했다. 브레이빅은 이 범죄를 완성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 추가테러를 위해 탄저균의 적절한 투입량까지 계산한 것이 밝혀질 정도로 그는 ‘단 한번’의 범죄를 위해 모든 삶을 다 바쳤다. 이처럼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범죄는 특수한 면을 가진다. 단 한 번의 짜릿함을 가져가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고, 노르웨이 법정처럼 끝까지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들을 철저히 소모시키듯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에 대한 대처

### 1.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치료가 가능한가?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사법체계상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능력’의 세 가지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반사회적 인격장애자가 범죄를 저지를 시, 앞의 두 가지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온전한 책임능력의 여부가 향후에도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정신과적 장애로 인정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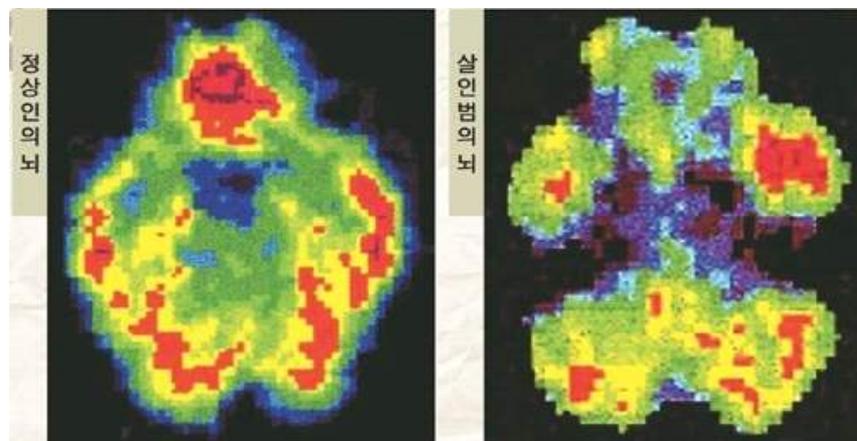


그림 10. fMRI로 비교한 정상인과 연쇄살인범의 뇌(출처:흐름출판)

이와 관련해서 2015년 서울고법에서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의 범인 박춘풍과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김하일에 대하여 ‘뇌 영상 촬영을 위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한 것은 주목되는 시도라 할 것이다. 감정의 핵심은 바로 사이코패스의 뇌기능과 관련 높다고 알려진 전전두엽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fMRI(기능적 자기공명영상)<sup>2)</sup> 촬영을 통해 밝히는 것이고, 두 사람간의 차이가 있는 지를 보는 것 등이다. 결과는 의외로 두 사람 모두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진단되었다. 일부 전전두엽의 손상 등은 확인되었지만, 사이코패스라 할 만한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fMRI를 이용한 거짓말 탐지의 정확성은 70~90%나 될 정도로 정확하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면 형량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담당 부장판사도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와 그 심리의 근원에 대해서 피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과학적 분석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적정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사법체계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사이코패스를 처벌하는 것이 교정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사이코패스에게 완전한 책임능력을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이들이 고도의 재범위험군이므로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겪게 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는 여전히 안고 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내의 한 부장판사는 “반복되고 심화되는 범행에 대하여 거의 판에 박힌 듯한 찍어내기식 형벌의 부과와 대책 없는 격리 위주의 교정처우 이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형사사법제도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지는 것 아니고는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교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에 대해 사법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1. 목포교도소의 심리치료센터(출처:전남일보)

2)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사람의 의식과 감정 변화에 따른 두뇌 반응을 실시간으로 영상화한다. 뇌신경 전달물질의 산소 소모량 변화에 따른 각각의 뇌 부위 혈류량을 파악하고 이상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2018년 목포교도소에서는 성폭력사범, 정신질환 수형자 등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강화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심리치료 센터를 개원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수형자의 왜곡된 범죄의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감옥에 가두어놓기만 하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심리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들의 강인한 인격을 모르는 헛된 시도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만족하며, 스스로 문제도 없다고 여기고, 고민거리 자체도 없다. 자신의 행동도 이성적이라고 판단하며, 과거를 후회하는 일은 절대 없다. 스스로를 우수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심리치료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이다. 또한, 공식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더욱 단단한 방어벽을 구축하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교도소 내에서 강제로 실시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사이코패스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다른 환자에 비해 4배나 높았다.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자들에 의하면, 사이코패스가 다른 환자들과 ‘두뇌게임’을 하면서 모임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사이코패스에게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며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 능통하게 해준다. 이 심리치료 자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요청이나 법적인 조치로 강제적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시늉만 하면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어설픈 심리치료는 사이코패스에게 위장의 가면을 덧씌워주며, 더 큰 기회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연쇄살인범 강호순도 전문 프로파일러의 심문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주도권을 쥐려는 행태부터 보였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누가 육식동물이 되고 누가 먹잇감이 되느냐의 흥미진진한 게임일 뿐이다.

## 2.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어차피 4%의 비율로 계속 태어난다고 봤을 때, 이들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모두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이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감춰진 폭력을 휘두르며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방임하는 것도 사회의 책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공론화할 시점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선천적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잘 못 느끼며, 양심이라고 하는 제어장치가 극히 미약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나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가족을 학대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이나 학교에서 폭군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투자자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사회의 고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사람들의 비율은 높아진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성실함과 명석함만으로 경쟁에서 이기기보다는 거짓과 모략으로 진실

호도하고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며, 사실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승리자가 되는 경우가 정치계와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게임에 이김으로써 그 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업 최고 경영자 가운데 20% 정도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녔다는 연구논문도 2016년 발표된 적이 있다. 아마 인종 학살을 일으킨 독재자,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트린 범죄자, 수많은 이성들에게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가서 금품을 갈취하고 자아를 상실케 하는 사람들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으로는 가능한 한 그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역시 거짓말에 능하다는 것이다. 홍콩대 연구팀이 ‘중개정신의학’에 2017년에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fMRI 검사를 통해서 사이코패스들이 거짓말을 할 때, ‘도덕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거짓말을 하며 그 동안 진짜 정보는 억압되고 뒤집힌다는 것을 밝혀냈다. 거짓말은 집중과 작업 기억, 억제 조절, 충돌 해결 등과 같은 뇌 속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이코패스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런 과정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중대한 거짓말을 세 번 정도 한 사람과는 관계를 단절할 것이 권유된다. 처음 한 두 번은 누구나 가능한 얘기지만, 이때에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잘 관찰해야 하며,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이어진다면 추후 더 심각한 상황을 일으킨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또, 전술한대로 그의 ‘역할’에 집중하기보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확하다. 언행일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 사람의 입장을 잘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분별없이 무작정 그들을 가르치려 한다거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들을 비난하며 몰아내려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게임의 먹잇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현재의 사회구조나 문화가 일조하는 면도 있다. 즉, 용감한 사람이 그들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과감한 지적을 한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이 문제에 얽히기 싫다는 이유로 적당히 무마하려 하거나 침묵하면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다. 사실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현상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에 풍파를 일으키지 마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뭔가 옳지 않거나 잘못된 것을 봐도 도덕적 분노감을 일으켜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서서히 둔감해져 간다. 나중에 이 잘못된 교육은 결국 소시오패스 같은 양심 없는 사람들에게서 자신과 가족을 지켜낼 최소한의 경계마저 허물어지게 만드는 법이다. 이것은 결국 잘못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마저 잃게 하고 그릇된 권위에 스스로를 부당하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을 돌아볼 가치가 있다. “세계는 살아가기에 위험한 곳이다. 사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전혀 치료되거나 교정될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이 성인으로 자라날 때까지 방치하여 스스로 잘못된 학습효과를 가지기 전에 예방 차원

에서 성장과정에서의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의학적인 트렌드로는 인간의 뇌는 플라스틱처럼 변형이 가능한 가소성(plasticity)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생후 5주된 아기들이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미미한 경우가 관찰된다고 한다.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데, 보다 일찍 이들의 성향을 발견하고 사회적인 지지와 적절한 심리 치료를 통해 이들이 느끼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3세 때, 공포에 대한 학습이 잘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이 20년 뒤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아직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기 이전에 공감에 기초한 양육을 충분히 하고, 사회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나중에 이들이 성인이 되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확실히 처벌하고 격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들이 임신 중에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다.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불리는 이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자리 잡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 약사 Point

1.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중범죄자도 많지만, 범죄로 밝혀지지 않는 주변인에 대한 학대로 더 많이 나타난다.
2.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교정효과는 매우 미약하며, 더 유효한 방법으로는 유년시절 초기에 정확히 성향을 파악하고 공감에 기초한 양육으로 사회적 가치관을 배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생명과학대사전
2.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3. 국가정보포털
4.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홈페이지 질환정보
5. 위키백과
6. 그것이 알고 싶다, 437회, 2007.7.21. 방영
7. 그것이 알고 싶다, 705회, 2009.2.21. 방영
8. 진단명:사이코패스, 로버트 D. 헤어, 2005, 바다출판사
9. 당신 옆의 소시오패스, 마사 스타우트, 2008, 산눈출판사
10. 천재의 두 얼굴, 사이코패스, 케빈 더튼, 2013, 미래의 창
11. 사이코패스I, 안성조, 서상문, 2009, 경인문화사
12. 사이코패스, 정서와 뇌, James Blair 외, 2012, 시그마프레스
13. 사이코패스 테스트, 존 론슨, 2011, (사)한국물가정보
14.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4014003&wlog\\_tag3=naver](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4014003&wlog_tag3=naver)
15. 핫이슈, <http://www.insight.co.kr/news/144600>
16. 코메디닷컴,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5502\\_2892.html](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5502_2892.html)
17.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0629.010140736320001>
18. 뉴스엔미디어,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7251752484100](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7251752484100)
19. 뉴스엔미디어,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7260908544100](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7260908544100)
20. 해럴드경제, <http://jj.heraldcorp.com/view.php?ud=20151109000380#a>
21.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02985&ref=A>
22. 뉴스1, <http://news1.kr/articles/?2525668>
23.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psytik/220542488573>
24.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2>
25. 사이언스 타임즈,  
<http://www.sciencetimes.co.kr/?news=%EC%82%AC%EC%9D%B4%EC%BD%94%ED%8C%A8%EC%8>

A%A4-%EA%B1%B0%EC%A7%93%EB%A7%90-%EB%B0%A5-%EB%A8%B9%EB%93%AF-%ED%95%98%EB%8B%A4-%EC%A0%95%EC%B2%B4-%EB%93%A4%ED%86%B5%EB%82%9C%EB%8B%A4

26. KISTI의 과학향기 스토리,

<http://scent.ndsl.kr/site/main/archive/article/%EA%B3%B5%EA%B0%90-%EB%8A%A5%EB%A0%A5%EC%9D%B4-%EC%97%86%EB%8A%94-%EB%B0%98%EC%82%AC%ED%9A%8C%EC%84%B1-%EC%9D%B8%EA%B2%A9%EC%9E%A5%EC%95%A0-%EC%96%B4%EB%96%BB%EA%B2%8C-%EB%B4%90%EC%95%BC-%ED%95%A0%EA%B9%8C>